

2013년 봉축 특집호 INDEX

A 특집1 · 어린이 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	3~6
어린이 포교 위기인가	
어린이 법회 어제와 오늘	
어린이 법회 · 단체 모범 사례	
어린이 포교 발전 방안은	
특집 · 틱낫한 방한 지상중계	11
화엄만다라 - 김안과 손경수 · 김용란	16~17
B 특집2 · 한국불교 '여성시대' 를 준비하자	1~3
한국불교 그리고 여성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 & 여성 수행 현장	
한국 여성불교가 나아갈 길	
봉축 법문 - 해인사 회광대 회주 보광 스님	5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	20
출가 4형제 & 예비 사미	21
수행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	25

부처님오신날 맞아 자비·보시행 '훈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보시의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부산 영일암 주지 현웅 스님은 5월 5일 동국대에 "젊은 불자 양성에 써달라"며 6억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지난 4월 말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모교인 동국대에 100억원의 기부금을 내셨다는 소식을 본지를 통해 접했다. 본지를 보며 내내 큰 환희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 스님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6억 원을 대학에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곧바로 학교 계좌로 송금했다.

스님의 기부가 감동적인 것은 스님이 '4無' 생활로 청빈한 삶을 살며 정재를 모았기 때문이다. '4無'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 등 현대인들의 필수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스님은 40대 후반 늦깎이로 출가하며 부처님 시주돈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작은 서원을 세

웠다. 현웅 스님은 승복도 출가 당시 얻은 것을 그대로 입고 있다. 스님의 승복은 30년 동안 기워 누더기가 된 상태다.

현웅 스님은 "출가수행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현웅 스님, 동국대 6억 기부 수좌회는 아이들 위해 5억 쾌척

이화불교사, 10만 어린이 단주 보시

선방 수좌 스님들의 나눔 동참도 이어졌다. 조계종 선원수좌회는 5월 2일 아름다운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쾌척했다. 당초 선원수좌회는 선방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선서화전을 열고 기금을 모았다. 선서화전 이후 수좌



전재산을 기부한 현웅 스님(왼쪽 사진)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5억원을 기부한 선원수좌회 스님들.



스님들은 노후복지 외에도 사회기여가 중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수익금 중 일부를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소외계층 돕기를 위해 전달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각 사찰에서도 동참이 이어졌다. 양양 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이 5월 8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어르신 경로잔치에 써달라"며 38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 앞 불교용품점 이화불교사 박용근 대표는 5월 8일 조계종 총무원에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사용할 단주 10만 개를 보시하기도 했다. 또 장애아동 복지 시설인 승가원은 불교계 유치원인 육연유치원 등에서 동년배 아이들이 심사일만 모은 연꽃 저금통이 전달되는 등 자비보시행이 활발히 전개됐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본지 캠페인 동참

8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도서 구입 기금 지정기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 공동 캠페인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에 수회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포교원과 본지에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도서 구입 기금을 지정 기탁했다.

전달식 후 자승 스님은 "교계 언론도 어려운 시기인데 어린이 포교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서 감사하다"며 "어린이 포교

는 한국불교계가 신경써야 할 숙제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불서를 접하고 부처님 법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과 김주일 본지 편집부장, 서춘건 관리부장이 함께 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9일 본지와 포교원의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하자' 공동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주한대사 만찬 성료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한 참전국 대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5월 8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 및 외교사절을 초청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일민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앤드류 스타트 영국 대사, 요르그 알 레딩 스위스 대사 등 외교사절 30명,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조운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 2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전쟁



조계종 스님들과 주한외교사절들이 진관사에서 차와 사찰음식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다.

의 희생사 모두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러한 안타까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국가들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전행사 후 참석자들은 진관사 주최 하에 경내 합월당으로 이동해 전통사찰음식으로 만찬을 즐겼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청정·개혁성 겸비해야”

연대회의, 9일 '차기 총무원장 선거 위한 기자회견'

올 하반기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사부대중연대회의(공동대표 이수덕, 만초, 서동석, 최연)가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을 발표하고 종단 쇄신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결결사, 민중불교동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 연대로 구성된 사부대중연대회의(이하 연

대회의)는 5월 9일 서울 장충동 만해 NGO 센터에서 '승가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올해 있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은 청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선거제도, 정책 등 의견을 수렴해 쇄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의 최연 대표는 "승가의 청정성 회복을 위해 출가자, 재가자가 함께 행동에 나선만큼 큰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그동안 활동성과를 담아 (내바퀴로 굴러가는 불교의 미래)를 펴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위주로 승가 뿐 아니라 불자의 실천 지침까지 담은 이 책은 조만간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배현진 수습기자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 박범훈·김의정·대불련

5월 17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조계종 불자대상 올해 수상자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의정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2557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의정 前 중앙신도회 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단체)를 선정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박범훈 前 수석은 중앙대 총장, 국립관현악단 초대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불교음악을 통해 한국적인 관현악을 발전시켜 왔다. 김 前 회장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3, 24대 회장을 역임하며 신도조직 활성화에 크게 공헌 했다.

또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963년 창립돼 불교의 사회참여 확산에 공헌했다. 한편,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宗)世界 佛教 宗團 聯合會

WBOA (Association of world Buddhist oder)



총재 映空 道成
회장 弘山 玄佛

佛敎國 各 會圓 一同

2013년 9월중순경 지구촌 평화 공영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참을 희망하는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사무실 : 충북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 광덕사 TEL : 041)584-4153 / FAX : 041)585-4153 회장 H · P : 010-6478-1569